

유리피판술을 이용한 비대칭 안면부의 교정

김병철 · 배형운 · 이내호 · 양경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반안면 왜소증이나 진행성 반안면 위축증과 같이 안면부의 비대칭을 가진 환자는 골격의 결손 및 비대칭 또는 피하 연부조직의 부족을 교정하여 얼굴의 윤곽을 개선하여야 한다.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연령에서나 교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면부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인 청소년기 이후나, 병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판단될 때 결손부의 해부학적 기능적 복원이 원칙이다. 연부조직을 재건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번에 걸쳐 근육내에 지방을 이식하거나, 근막 또는 진피이식, 합성 물질 등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여, 근자에는 유경피판술 또는 유리피판술을 이용하여 그 용적을 유지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리피판술로는 표피를 벗긴 유리건갑피판이나 유리서혜부피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외에 유리대망피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기는 쉬워도 무게 때문에 처지며, 개복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저자들은 안면결손을 가진 5례의 환자에서 유리외측대퇴피판, 유리대망피판 및 Scarpa's adipofascial free flap 등을 사용하여 피하 연부조직결손을 재건하였으며, 기능적 또는 외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